

음악중점학교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최 은 식* · 김 일 영**

본 연구는 2011학년도에 음악중점학교로 지정된 13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평가체제, 학생선발, 교사수급, 환경 및 시설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음악중점학교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종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음악중점학교 방문,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음악중점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재, 평가체제, 학생선발, 환경 및 시설,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음악중점학교, 교육과정, 학생선발, 환경 및 시설

차 례

- I. 서론
- II. 음악중점학교의 특징
- III. 연구방법
- IV. 음악중점학교의 운영실태
 - 1. 음악중점학교의 현황
 - 2. 음악중점학교의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 3. 학생선발과 교사수급
 - 4. 음악중점학교의 환경 및 시설
- V. 음악중점학교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kiy92@hanmail.net

I. 서론

지금까지는 중등교육에서의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기회가 소수 예술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음악적 잠재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심화된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교과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7. 8)을 수립하여 ‘예술·체육 중점학교’의 설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1년부터 음악중점학교의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교육과학기술부, 2010. 5. 20), 음악중점학교란 일반 중·고등학생 중에서 음악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음악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된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음악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음악교육을 심화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학교의 다양화를 촉진시켜 단순 기능습득 위주의 음악교육을 벗어나 창의·인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음악중점학교 설립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0).

2011년 현재 기존의 예술 중·고 및 체육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예술·체육 계열이 설치된 학교는 89개교(1,437교 중)이다. 이 중 75개교가 서울·경기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대상의 음악중점학교 운영정책이 제기되었다.

음악중점학교의 체제는 2009년부터 시행된 과학중점학교의 운영방침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중점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의 경우 중점반 학생들이 아닌 일반 문과계열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학교의 운영이 과학중심으로 진행되고 과학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담당교사들은 기존에 비해 업무가 과중된 만큼의 과학교원의 수가 확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세환, 2011).

또한 중점학교의 중점교과 재량활동에 관한 적절한 교수·학습자료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수업시간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여 수업모형개발과 교구 및 기자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박은실, 2011). 더 나아가 중점학교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교과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동기유발, 교과에 대한 긴장감,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등의 정의적 측면들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홍지혜, 2011).

이와 같이 초기 중점학교가 가진 특수성과 중점반과 더불어 일반학급을 함께 운영해야하는 운영상의 양면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악중점학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에 지정된 전국의 13개 음악중점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음악중점학교의 교육과정, 평가체제, 학생선발과 교사수급, 환경 및 시설 상태를 분석하여 초기 음악중점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음악중점학교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음악중점학교의 특징

음악중점 중·고등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도 예술·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각 학교의 학교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생 지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교과부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음악중점학교는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음악중점학교의 운영체제는 일반 중·고등학교와 예술 중·고등학교가 절충된 형태이면서 <표 1>의 내용과 같이 일반학교나 혹은 예술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 및 운영 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즉 음악중점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1~2개 학급의 음악중점 반을 설치하며, 예술 중·고등학교

와는 달리 학생선발 과정에서 음악실기능력을 위주로 평가하지 않고 음악적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일반학교, 음악중점학교, 예술 중·고등학교의 특징 비교

구분		일반 중·고등학교	음악중점 중·고등학교	예술(음악) 중·고등학교
교육 목표		모든 과목에 대한 고른 지식 함양	음악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 실시	예술인 양성
학생 모집	대상	일반 학생	일반학생 +음악중점대상 학생	예술을 전문적으로 교 육받고자 하는 학생
	방법	평준화: 추천 및 배정 비평준화: 학교선발	중학교는 추천으로 선 발, 고등학교는 자기주 도 학습전형 (서류 및 면접)으로 선발 ¹⁾	내신, 실기, 면접, 수상 실적 등으로 선발
중점학급 규모		학급당 35명 기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규모 결정	음악중점 학급은 1~2 학급으로 구성	학급당 35명 기준, 지 역 여건에 따라 학교 규모 결정
음악 시수		국가 교육과정에 준 하는 교육과정 이수 (예술(음악/미술) 10, 체육 10단위)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 정의 24% 운영 가능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 라 54~103단위 까지 이수 가능(총 교과 180 단위 중)	예술교과 80단위 이상
음악 교원		교원배치기준에 따름	전임교원 1인 이상 배 치 및 강사 활용 확대	예술전문교원 50%이상
규모		1,437교 ('09년)	13교 ('11년)	44교 ('09년)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5. 21).

1) <표 10> 참조.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학년도에 최종 선정된 음악중점 중·고등학교 13개교로 <표 2>와 같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이고, 지역별로 서울 2개교, 대구 1개교, 인천 1개교, 경기 3개교, 경북 1개교, 경남 2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 학교들 중에는 음악중점학교로 선정되기 전부터 관현악반, 관악반 등을 운영하며 음악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음악중점학교를 운영하기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표 2> 2011학년도 선정 음악중점학교

순	지역	학교급	학교명	순	지역	학교급	학교명
1	서울	중	A중학교	8	경남	중	H중학교
2	인천	중	B중학교	9	경남	중	I중학교
3	대구	중	C중학교	10	서울	고	J고등학교
4	경기	중	D중학교	11	강원	고	K고등학교
5	경기	중	E중학교	12	충북	고	L고등학교
6	경기	중	F중학교	13	충남	고	M고등학교
7	경북	중	G중학교				
총 13개교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음악중점학교 학생선발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검토, 중점과정 시간편제 구성,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음악중

점학교 교육과정개발과 음악중점학교의 운영 실태조사 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음악중점학교의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협조아래 음악중점학교 담당교사 회의 참석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일부 음악중점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 시점에서의 학교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료와 학교홈페이지 탑재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교육과정, 평가체제, 학생선발과 교사수급, 환경 및 시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초기 음악중점학교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분석의 범주를 교육과정, 평가체제, 학생선발과 교사수급, 환경 및 시설의 직접적 관점에 제한하여 학교장의 의지나 지역의 여건 등의 간접적 환경을 다루지 않았고, 둘째, 자료의 시점이 계획단계인 학기 초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IV. 음악중점학교의 운영실태

1. 음악중점학교의 현황

전국적으로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중학교 17개교와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30개교가 선정되었고, 이 학교들은 특성에 맞게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영상 교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중 음악중점학교는 1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표 2>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연구의 시점에서 음악중점학교들의 음악중점 반은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1~2학급 규모로 개설되었으며, 한 학급당 25명~35명 정도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 3> 음악중점학교의 중점학급 수와 학생 수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A중학교	2	60	H중학교	1	30
B중학교	2	57	I중학교	1	30
C중학교	2	60	J고등학교	2	58
D중학교	2	55	K고등학교	2	57
E중학교	2	58	L고등학교	1	35
F중학교	2	39	M고등학교	2	70
G중학교	2	51			

2. 음악중점학교의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1) 음악중점 중학교 교육 목적 및 목표

음악중점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음악중점 중학교의 음악교과 및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음악중점교육 통해 다양한 음악경험을 하고, 기본적인 미적 체험의 기회를 얻으며,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을 갖춰 음악적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재능을 길러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음악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중점 중학교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해 미적 체험과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며, 음악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편제와 교육과정 운영상 특징

음악중점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음악을 중점교과로 편성한다. 일반중학교와 음악중점 중학교의 과목 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을 비교한 <표 4>와 같이 음악중점 중학교에서는 음악교과

를 전체 3,366시간 중 최대 830시간(24%)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

음악중점 중학교의 교과(군)는 한 학기에 8개 과목²⁾으로 하되 음악교과의 중점 과목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음악중점학교의 성격에 따라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표 4> 일반중학교와 음악중점 중학교의 교육과정편제 및 수업시수 비교

구 분		1~3학년	
		일반 중학교	음악중점 중학교
교과 (군)	국어	442	354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408
	수학	374	299
	과학/기술·가정	646	517
	체육	272	217
	예술(음악/미술)	272	830 ³⁾
	영어	340	272
	선택	204	163
창의적 체험활동		306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3,366

3) 음악중점 중학교의 음악중점과목

음악중점 중학교의 음악중점과목은 <표 5>에 제시된 ‘공통 필수’와 ‘공통 선택’ 과목을 토대로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공통필수와

2)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로 한다.

3) 음악교과를 최대 830시간으로 할 경우, 타 교과의 수업시수를 조정하여 미술교과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목은 음악기초이론, 음악감상,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이며, 공통선택과목에는 컴퓨터 음악, 기초 피아노실기, 즉흥연주, 음악사, 창의적 표현, 실내악이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교과(군)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 5> 음악중점 중학교의 음악과목

과목 영역	과 목 명
공통 필수	음악기초이론, 음악감상,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
공통 선택	컴퓨터 음악, 기초 피아노 실기, 즉흥연주, 음악사, 창의적 표현, 실내악

<표 6> 음악중점 중학교의 음악중점과목

학교		A	B	C	D	E	F	G	H	I	합계
공통 필수	과목										
	음악기초이론	○	○	○	·	○	○	·	○	○	7
	음악감상	○	○	○	·	○	○	○	·	○	7
	전공실기	○	○	○	○	○	○	○	○	○	9
	합창·합주	○	○	○	○	○	○	○	○	○	9
	시창·청음	○	○	○	○	○	○	○	○	○	9
공통 선택	컴퓨터 음악	·	·	·	·	·	·	○	·	·	1
	기초피아노실기	·	·	·	·	○	○	○	·	○	4
	즉흥연주	·	·	·	·	·	·	·	·	·	0
	음악사	○	○	○	○	○	○	·	○	·	7
	창의적 표현	·	·	·	·	○	○	·	○	·	3
	실내악	·	·	·	·	○	○	·	·	·	2
기타	향상음악회(연주)	○	○	○	○	·	·	·	○	○	6
	교과음악	·	·	○	○	·	·	○	·	·	3
	국악실기	·	·	·	·	·	·	○	·	·	1
	가창	·	·	·	·	·	·	·	·	○	1
합계		7	7	8	6	9	9	8	7	8	69

현재 9개의 음악중점 중학교들의 음악중점과목 개설현황은 <표 6>과 같다. 공통필수 과목 중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은 9개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였고, 공통선택 과목의 경우, ‘음악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들은 드물게 개설되었다. 그 밖에 학교 자율적으로 기타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음악중점과목들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음악중점 학교들은 학생 수에 비해 레슨실이 부족하여 ‘전공실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주1회의 전공실기 시간을 방과 후 학교의 음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공실기 수업을 보충하기도 한다.

‘합창·합주’는 각 학교 학생들의 전공실기 분포에 따라 합창이나 합주 중 한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공실기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 진행하기도 한다. 관현악 전공의 입학생이 많은 A중학교와 D중학교의 경우 합창보다는 합주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창·청음’ 능력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편차가 많은데, D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창·청음 능력에 따라 기초반과 일반반으로 나누어 2개 수준의 수준별 수업을 시도하고 있고, ‘시창·청음’ 과목을 ‘솔페이지’로 바꿔 개설하기도 하였다.

‘기초 피아노 실기’는 피아노를 전공실기로 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부전공의 개념으로 개설되고 있다. E중학교에서는 관현악 전공이 아닌 피아노나 성악 전공의 학생들도 합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현악기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창의적 표현’은 과목 특성상 교과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다양한 수업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H중학교는 유리드믹스를, F중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연주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음악중점과목이 가진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실기, 컴퓨터 음악, 창의적 표현, 즉흥연주, 실내악 등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으로 지적되었다. 그 이유는 기초 피아노 실

기나 컴퓨터 음악 수업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창의적 표현이나 즉흥연주 등은 교과내용이 모호하며 실내악은 연주자 구성이 난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재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음악중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의 교재들이 없어 그 대안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교사가 직접 교재를 제작해서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들이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음악중점 중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담당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음악중점학교의 교육여건에 가장 적합한 음악중점과목으로 전공실기, 시창·청음, 합창·합주, 향상음악회, 음악기초이론 등을 꼽았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전공실기 연주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설 및 교수·학습기자재 확보, 교육과정상 교과목의 정확한 목표 및 내용제시, 중학생 수준의 교재개발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4) 음악중점 고등학교 교육 목적 및 목표

음악중점 고등학교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음악경험을 통하여 학생의 미적 체험의 기회를 극대화시키고, 음악적 소양을 넓힐 뿐 아니라 음악적 느낌을 체계화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전문적인 음악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음악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중점 고등학교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악곡과 심화된 음악활동을 통해 미적 체험과 음악적 소양을 넓힌다. 둘째, 다양한 음악의 특징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인 음악으로 표현한다. 셋째, 심화된 음악개념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음악적 사고력을 기른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따라서 음악중점 고등학교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음악적 경험을 학생에

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미적체험과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음악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며 창의적인 음악적 발상의 구체화에 요구되는 음악성과 음악적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5) 음악중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특징

음악중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표 7>에서와 같이 음악중점과목을 54~103단위 범위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음악중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7> 음악중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구 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중점 교육 과정	학교 자율과정		
			교과(군)	교과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0	30	음악중점 과목으로 편성 운영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0	2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5)	15				
		예술 (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2	12				
	소 계		77				54 ~ 103	0 ~ 49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첫째, 교과는 보통 교과와 음악중점 교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

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음악중점 교과는 ‘공통 필수’, ‘공통 선택’, ‘전문선택’ 과목으로 나뉘며, 공통필수과목은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감상,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이며, 공통선택과목은 실내악, 컴퓨터와 음악, 피아노 실기, 즉흥연주, 국악실기를 포함하고, 전문선택과목은 예술의 이해, 문학과 음악, 월드뮤직, 음악과 직업, 뮤직 프로덕션 등이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음악중점학교의 성격에 알맞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셋째, 음악교과의 중점과목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표 8> 음악중점 고등학교의 과목

과목 영역		과 목 명
공통 필수	이론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감상
	실기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
공통 선택		실내악, 컴퓨터와 음악, 피아노 실기, 즉흥연주, 국악실기
전문 선택		예술의 이해, 문학과 음악, 월드뮤직, 음악과 직업, 뮤직 프로덕션

현재 음악중점 고등학교의 과목편성은 <표 9>와 같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은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 감상, 전공실기, 합창·합주, 시창·청음 등으로 주로 공통필수 과목이며, 그 외에 공통선택이나 전문선택과목들은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중점 고등학교들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폭넓은 음악경험을 추구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음악중점 중학교와는 달리, 음악을 심화하여 교수·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음악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음악중점과목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공실기, 합창, 합주 수업과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 다져진 연주실력

을 음악회나 각종 연주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J고등학교의 경우 교내향상 음악회를 매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연주회를 통해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간 8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열어 무대 경험을 쌓게 하고, 대내·외의 유명한 연주자를 초빙하여 공개레슨을 하는 등 교과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주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9> 음악중점 고등학교 음악중점과목 구성

학교		J고	K고	L고 ⁴⁾	M고	합계
과목						
공 통 필 수 과목	음악이론	○	○	·	○	3
	음악사	○	○	·	·	2
	음악감상	·	○	·	○	2
	전공실기	○	○	○	○	4
	합창·합주	○	○	·	○(합주)	3
	시창·청음	○	○	·	○	3
공 통 선 택 과목	실내악	·	·	·	·	0
	컴퓨터와 음악	·	·	·	·	0
	피아노 실기	·	·	·	·	0
	즉흥연주	·	·	·	·	0
	국악실기	·	·	·	·	0
전 문 선 택 과목	예술의 이해	·	·	·	·	0
	문학과 음악	·	·	·	·	0
	월드뮤직	·	·	·	·	0
	음악과 직업	·	·	·	·	0
	뮤직프로덕션	·	·	·	·	0
합 계		6	6	1	5	

6) 음악중점학교의 평가체제

음악중점학교들의 내신산출 및 평가계획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형은 세

4) L고는 1학년 1학기에 전공실기 과목만 개설하였고, 2학기 이후의 교육과정은 차후 계획 될 예정이다.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일반학급과 분리하여 음악중점반만 내신을 산출하는 ‘분리형’이다. 둘째, 일반학급과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분은 일반학급과 음악중점학급을 통합하고, 음악과목 등은 분리하여 음악중점학급 자체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절충형’이다. 셋째, 일반학급과 음악중점반의 내신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통합형’이다.

<표 10> 음악중점학교의 평가계획

	평가체제	유형
A중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B중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 음악중점과목 ‘수·우·미·양·가’의 5단계 평가	분리형
C중학교	- 일반학급과 수업시수가 동일한 과목은 통합 평가(음악교과 포함) - 그 외 과목은 분리하여 평가 - 음악 중점교과 중 실기과목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	절충형
D중학교	- 일반학급과 수업시수가 같은 ‘국·영·수’과목은 통합 평가 - 그 외 과목은 음악 중점반만 평가	절충형
E중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 음악중점교과는 ‘음악’으로 묶어 평가 - 내신산출을 분리하되 일반학급과 이수과목의 종류는 동일	분리형
F중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G중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H중학교	- 일반학급과 통합하여 내신산출	통합형
I중학교	- 음악교과는 중점반만 따로 내신산출 - 일반과목은 일반학급과 통합하여 내신산출	절충형
J고등학교	- 일반과목은 일반학급과 통합하여 내신산출 - 음악과목은 중점반 학생들로만 평가	절충형
K고등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L고등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M고등학교	- 일반학급과 분리·음악중점반만 내신산출	분리형

※ 음악중점학교의 평가계획에 의한 것으로 연구 시점 이후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방법 및 내신산출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표 10>과 같이 13개 학교 중 8개교가 분리형으로 내신을 산출할 계획이며, 4개교는 절충형, 1개교는 통합형으로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학급과 음악중점학급의 성적을 분리하여 내신을 산출하는 분리형 평가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중점학교들은 학기 시작 전에 미리 마련했어야 할 평가체제를 한 학기의 중반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채 평가 안 모색을 위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음악중점학교 시행을 위한 사전연구와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평가체제에 대한 지침 및 안내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본다.

이렇게 평가체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음악중점학교가 일반학교의 운영체제와 병행되고 있으나, 일반학급과 음악중점학급의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당 수업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새롭게 학교가 운영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학교와 음악중점 반 운영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상에 일반학급과 음악중점학급의 교과목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성적을 산출해야하는 방법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 학생선발과 교사수급

1) 학생선발

음악중점학교는 학생의 음악적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음악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음악문화 역량 제고하며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음악중점학교 학생선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점중학교는 지원 입학대상자 중에서 추천하며, 무시험 입학전형으로 한다. 둘째, 음악중점 고등학교는 음악적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음악적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적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한다. 음악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학습의 자기 주도성 및 학습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음악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한다.

넷째, 학생 선발에 있어 사교육을 배제한다. 학생 선발에 있어 음악과 관련된 해당 분야 교과 전문 지식을 묻는 형태의 필기 및 구술 면접 등을 하지 않으며 음악관련 인증시험 성적, 콩쿠르, 시험(경기), 경시대회, 수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여부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음악중점학교의 학생선발과정은 음악의 기능적 능력 시험위주가 아닌 잠재된 음악적 재능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1> 음악중점학교 입학전형

학교급	1단계	2단계
중학교	입학원서	무시험 추천제
고등학교	[서류] 교과내신성적 + 출결성적	[면접] 학습계획 평가 + 잠재적 역량 평가

이러한 학생선발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음악중점학교들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전공실기시험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을 포함하지 않았다. 음악중점 중학교들은 지원자에 한해 무작위 추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1단계에서 교과 내신 성적과 출결을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 음악적 잠재능력을 평가하였다.

면접은 학생이 음악중점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의지와 배경에 관한 것을 중점내용으로 하며,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학습 및 진로 계획 및 해당 분야 체험 활동에 관한 내용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입학생들 중에는 예중, 예고, 음대입

학을 목표로 실력을 쌓아온 경우가 있는 반면, 일반학교 교육의 도피형태로 지원하여 입학하게 된 경우도 있어 음악적 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추천제와 같은 무분별한 학생선발과정이 오히려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D중학교에서는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자신과 잘 맞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입학당시 전공별로 모집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학교의 전공실기 종류의 수가 최소 7개부터 많게는 18개까지 분포하고 있어 음악중점 받은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다른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음악중점학교의 전공실기 종류의 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국악기	기타	합계
A중	3종	2종	0	2	3	10종
B중	2종	2종	0	3	3	10종
C중	2종	3종	0	5종	2종	12종
D중	3종	5종	1종	0	0	9종
E중	3종	6종	0	0	3종	12종
F중	0	5종	0	3종	2종	10종
G중	3종	4종	0	2종	3종	12종
H중	2종	2종	0	1종	3종	8종
I중	2종	2종	1종	0	2종	7종
J고	4종	4종	0	0	2종	10종
K고	4종	8종	1종	1종	4종	18종
L고	3종	1종	1종	1종	4종	10종
M고	3종	5종	0	2종	4종	14종

※ 기타영역의 전공으로 성악, 피아노, 작곡, 국악가창, 실용음악 등이 있다.

2) 교사수급

대부분의 음악중점학교에는 1~2명 정도의 기존 음악교사들이 음악중점 관련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여 맡고 있어 일이 과중되고 있으나, 음악교사의 증원은 없는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공실기 강사(국악, 서양악), 이론과목 강사, 도교육청 지원의 인턴교사, 대학과 연계한 강사, 특별강연회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적 경험을 쌓은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전공실기 및 이론 강사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공고를 내고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채용된 전공실기 강사 수는 7명~24명 정도로 학생 수와 전공실기 종류에 따라 섭외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박사급의 수준 높은 강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간당 강사비는 대략 3~5만원 정도로 강사 한 명당 가르치는 학생 수도 적어 실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비는 사교육 시장에 비해 현저히 적다. 낮은 강사비로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준 높은 강사채용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4. 음악중점학교의 환경 및 시설

음악중점학교들은 기존의 학교건물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대부분 음악중점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은 음악실로 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악기나 노래연습을 위한 개인연습실을 마련하고 있고, 개인연습실은 기존의 일반교실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한 교실당 7개 정도의 연습실 공간이 나누어지도록 설계되었다. 학교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습실의 개수와 냉·난방시설, 방음시설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양상블실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3명~5명이 함께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합주실 대략 80명~9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연주홀로 사용되고 있다. 공연장은 약 150명 정도의 객석을 확보한 공간으

로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의 강당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정기연주회 등을 하는 데 사용된다. 그 밖에 악기보관실 및 클레스 피아노실과 같은 공간도 마련되었다.

<표 13> 음악중점학교의 시설현황

	음악실	개인 연습실	앙상블실	합주실	공연장	기초 피아노실
A중	2	24	4	1	1	·
B중	1	14	·	1	·	1
C중	2	25	·	1	1	·
D중	2	4(+8)	·	1	1	·
E중	2	(10)	7(+3)	1	(1)	2
F중	1	14	1	1	·	·
G중	2	7	·	1	·	·
H중	2	14	·	1	·	·
I중	2	9	3	·	·	·
J고	1	20	3	1	1	·
K고	2	20	5	1	1	·
L고	1	7(+15)	·	·	1	·
M고	1	44	·	·	·	·

※()의 숫자는 공사 중이거나 시설공사 예정의 실별 수.

음악중점학교의 시설비와 교구비는 중점반이 2개 반으로 운영될 경우, 설립초기 단위 학교별로 4억원 내외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분담하여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운영비로 1학급당 연간 5천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H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음악실이 2개로 리모델링하면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였고, 그랜드피아노, 컴퓨터, 오디오시스템, 전자칠판 등을 구비하였다. 또한 개인연습실

은 14개로 각 방에 피아노를 구비하고, 선풍기, 방음, 콘서트 등을 내장하였으며, 첼로 5대, 바이올린 5대, 플룻 3대, 가야금 2대, 트롬본 등의 악기를 구입하여 악기보관실에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음악중점학교들이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초 각 학교에서 예산으로 계획한 시설과 악기구입, 강사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의 지원 없이 교과부 지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기본적인 연습실 및 레슨실이 부족하여 음악중점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학교도 있다. L고등학교의 경우 전공레슨을 위한 공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여러 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악기를 구입하도록 권장하거나, 피아노 등의 기본 악기만 구비한 학교도 많다.

음악교과는 교과 특성상 실기비중이 높고, 악기의 다양성과 개인 간 수준 차를 고려하고 다양한 음악활동과 방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및 소그룹, 합창, 합주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음악중점학교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점반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중점 중·고등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음악중점학교 제도가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음악중점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이 보다 체계화 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음악중점 고등학교들은 공통필수과목만 개설하고 공통선택과 전문선택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지 않아 다양하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음악중점학교의 기본취지에 맞게 일반학생들의 음

악적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교과목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중점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출판된 교재 중에서 음악중점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에 해당하는 적합한 교재를 찾기 어렵다. 특히 중학생을 위한 음악교재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음악중점 중학교에서는 중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기초이론과 실습, 시창·청음, 음악사 등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목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계획을 불투명하게 하며, 교육내용의 체계성이 떨어져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음악교재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중점반의 평가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음악중점학교는 일반학교체제에서 병행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일반학교와 달라 평가체제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고 구체적인 평가 지침도 안내되어 있지 않아 내신산출 문제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중점학교의 특성상 학교 교육여건에 맞는 평가체제를 각 중점학교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분리형, 절충형, 통합형의 평가체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학생의 성적처리와 전출서류 처리를 위한 정확한 성적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프로그램인 나이스 상의 성적 입력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중점학교의 학생선발제도는 학교 재량권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학생선발제도인 추천제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은 음악적성과 음악적 잠재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배제하고 있어 음악에 흥미와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각 음악중점학교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된 음악활동을 하기에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위해 학생선발에서 각 학교의 선발 재량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발과정에서 음악적성검사 등을 통해 음악적 잠재성을 지닌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운영비와 환경시설비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음악능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음악활동인 연습, 레슨, 연주를 위한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학교에서 음악중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시설과 운영을 위한 경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지만, 현장 실사 없이 책정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아직까지 시설비 지원없이 운영비만 지원된 경우도 있어 운영상의 불안감이 맴돌고 있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책정과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부의 2011년 3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점학교를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면서 중복적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정책으로 인하여 현장은 내년에도 음악중점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음악중점학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 밖에 음악중점학교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 개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을 통한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예술·체육중점학교 30개교 선정발표. (2010.5.20)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 (2010.7.8)
- 박세환 (2011). 과학 중점화 학교 교육현장의 실태와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실 (2011). 과학중점학교의 수학 교과 운영실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0). 예술·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KACES-1070-R002.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1). 교육과정 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 가이드북. 서울: 저자.
- 홍지혜 (2011). 과학중점학교 운영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과 과학교사의 학교 환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 영림중학교: <http://www.younglim.ms.kr> 2011. 4. 1
- 대원여자고등학교: <http://www.dwg.hs.kr/> 2011. 4. 1
- 소선여자중학교: <http://www.sosun.ms.kr/> 2011. 4. 1
- 인천여자중학교: <http://inchon.ms.kr> 2011. 4. 1
- 은혜중학교: <http://www.eunhye.ms.kr/> 2011. 4. 1
- 장호원중학교: <http://www.janghowon-mid.ms.kr/> 2011. 4. 1
- 효자중학교: <http://www.hyoja.ms.kr> 2011. 4. 1
- 봉의고등학교: <http://www.bongeu.hs.kr> 2011. 4. 1
- 예성여자고등학교: <http://www.yesung.org/> 2011. 4. 1
- 금성여자고등학교: www.ksg.hs.kr 2011. 4. 1
- 진평중학교: <http://www.jinpyeong.ms.kr/> 2011. 4. 1
- 계룡중학교: <http://www.gr.ms.kr/> 2011. 4. 1
- 진영중학교: www.jinyeong.ms.kr 2011. 4. 1

ABSTRACT

A Study for Analysis and Improvement of Music Centered Secondary Schools

Choi, Eunshik · Kim, Il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music centered secondary schools and to suggest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for those schools in terms of curriculum, evaluation, admission process, and facility.

The objects of this study was 13 music centered secondary schools, including 9 middle schools and 4 high schools. To collect materials for analysis visitation to the schools, telephone interviews with the teachers who are involved in the program, and internet portal cites of the involved schools were utilized.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in terms of four categories which the researchers had set for the study.

As a result, following policies for improvement of music centered schools were suggested: first,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specified for the use in the music centered schools; second,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adjusted for musically advanced students; third, need for the autonomous control for admission process, and fourth, continuous administrative support from national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n terms of finance and training of personnels.

key words: music centered schools, music curriculum, evaluation system, admission process

투고일: 5월 31일, 심사(수정)일: 7월 1일(7월 16일), 게재확정일: 8월 8일